2015년도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 일　　시 : 2015. 5. 26.(화) 13: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신동원, 안창모, 여홍구, 오용섭, 채금석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등록 제240, 241호 「창덕궁 희정당 총석정절경도」 등 2건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현상변경	
2	사적 제157호 「환구단」 주변 현상변경(백화점 증축)	
3	사적 제157호「환구단」주변 현상변경 (계단실 증축)	
4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현상변경 (가설물 설치 등)	
5	등록 제292호「경주 우안양수장」등록 말소	
6	사적 제438호「안국동윤보선가」보수정비 설계검토	
【검토사항】		
7	「서울 가회동 근대 한옥」 문화재 등록	
8	「서울 탑골공원 구 정문」 문화재 등록	
9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문화재 등록	
10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 문화재 등록	
【보고사항】		
11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현상변경 허가 처리 보고	

안건번호 근대2015-04-001

1. 등록 제240, 241호 「창덕궁 희정당 총석정절경도」등 2건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창덕궁 소재 희정당 부벽화인 등록 제240, 241호「창덕궁 희정당 총석정절경도」등 2건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덕궁 소재 희정당 부벽화인 등록 **제240, 241호「창덕궁 희정당 총석정절경도」등 2건의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을 위한 현상변경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창덕궁관리소장

(2) 대상문화재

등록번호	문화재명	소재지(소장처)	제작연도	수량/규격	소유자
240	창덕궁 희정당 총석정절경도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관리소	1920년경	195×880cm	문화재청
241	창덕궁 희정당 금강산만물초승경도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관리소	1920년경	195×880cm	문화재청

(3) 신청내용 :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 사 업 명 : 창덕궁 희정당 부벽화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 사업목적

- 희정당 부벽화인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가 찢어지고 퇴색이 심하여 보존처리 후 원본은 적합한 장소에 보관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 사업금액 : 금450,000,000원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1차 자문회의('15.3.13)

- 자문위원 : ○ ○ ○, ○ ○ ○, ○ ○ ○
- 자문의견
  - ·본 사업은 직전사업인 대조전 부벽화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 ·보존처리와 모사도 제작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독립적인 작업을 위해 분리 발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보존처리와 모사도 제작을 분리할 경우 작업상의 문제나, 모사도 제작을 위해 보존처리 과정에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 2차 자문회의('15.5.6.)

- 자문위원 : ○ ○ ○, ○ ○ ○, ○ ○ ○, ○ ○ ○
- 자문의견
  - ·희정당 부벽화의 모사도 제작은 대조전과 마찬가지로 복원모사로 한다.
  - ·보존처리와 모사도 제작을 분리하여, 보존처리 사업을 먼저 시행하되 이어 모사도 제작 사업을 발주하여 모사 작업시 필요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보고서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작업공정별 과정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련 동영상도 확보해 두기로 한다.

마. 검토의견

○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 6명, 찬성 6명

붙임 : 창덕궁 희정당 부벽화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계획서 1부.

창덕궁 희정당 부벽화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계획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창덕궁 희정당 부벽화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2) 사업목적 : 희정당 부벽화인 「총석정절경도」와「금강산만물초승경도」를 보존처리하여 원본은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고 모사도 제작을 통하여 모사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대상 : 창덕궁 희정당 내부 부벽화 2점의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2015.5월 ~2016.10월)

5) 사업금액 : 금450,000,000원(* '15년예산 : 220백만원)

구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1차년도	보존처리	120백만원	사전조사, 클리닝 및 결손부메움 등	2015.5~12
	모사도제작	100백만원	사전조사 및 촬영, 초본제작, 화견제작, 초올리기 등	
2차년도	보존처리	120백만원	배접, 색맞춤, 기록 등	2016.1~10
	모사도제작	110백만원	채색, 배접, 부착, 기록	

2. 보존처리 조사 및 계획 수립

1) 보존처리 상태조사 결과(2011~2012년)

❍ 조사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조사결과

- 외부의 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태
- 현재의 환경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퇴색, 열화가 지속적으로 발생 예상됨
- 온·습도의 변화로 수축·팽창이 반복되어 찢김 등 물리적인 손상이 진행됨
- 대부분의 안료가 비교적 안정적이나 일부 박락과 분말화 현상이 진행

2) 2015년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에 관한 자문회의 결과

❍ 자문위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자문일자 : 2015년 3월 13일

❍ 자문결과

- 본 사업은 직전사업인 대조전 부벽화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 보존처리와 모사도제작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독립적인 작업을 위해 분리 발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보존처리와 모사도 제작을 분리할 경우 작업상의 문제나, 모사도 제작을 위해 보존처리 과정에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3) 2015년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에 관한 2차 자문회의 결과

❍ 자문위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자문일자 : 2015년 5월 6일

❍ 자문결과

- 희정당 부벽화의 모사도 제작은 대조전과 마찬가지로 복원모사로 제작한다.
- 보존처리와 모사도 제작을 분리하여 사업 시행 시 보존처리와 유사한 기간에 모사도 제작 사업을 발주하여 모사 작업 시 필요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보고서 작업 시 작업공정별 과정사진을 찍고, 카메라로 영상을 확보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한다.

3. 보존처리실적('13~'14년)

1) 창덕궁 대조전 부벽화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용역 시행

❍ 사 업 명 : 창덕궁 대조전 부벽화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용역

❍ 사업기간 : 2013.05.31.~2014.11.21.(총540일)

❍ 용역대상 : 창덕궁 대조전 봉황도(등록문화재 제242호)
창덕궁 대조전 백학도(등록문화재 제243호)

❍ 용 역 비 : 330백만원

❍ 사업내용 : 대조전 부벽화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각 1식

2) 창덕궁 대조전 부벽화 국립고궁박물관 이관(2014.11.20.)완료

4. '15년 보존처리계획

1) 보존처리 대상현황

위 치	유 물 명	종 목	규 격(cm)	비 고
희정당	총석정절경도	등록문화재 제 240호	195×880	김규진 作
	금강산만물초승경도	등록문화재 제 241호	195×880	김규진 作

희정당 좌측면 총석정절경도 전경

희정당 우측면 금강산만물초승경도 전경

2) 추진일정

- ❍ 일상감사 요청 및 사업계획 수립(‘15.4월)
- ❍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15.5월)
- ❍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15.6월)
-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사업기간 중 필요시)
- ❍ 성과물 납품 및 검수(‘16.11월)

3) 추진효과

- ❍ 부벽 회화 원본의 보존처리를 통한 효과적인 보존
- ❍ 모사도 제작을 통한 모사기술 향상 계기 마련
- ❍ 관람객에게 품격 있는 유물 전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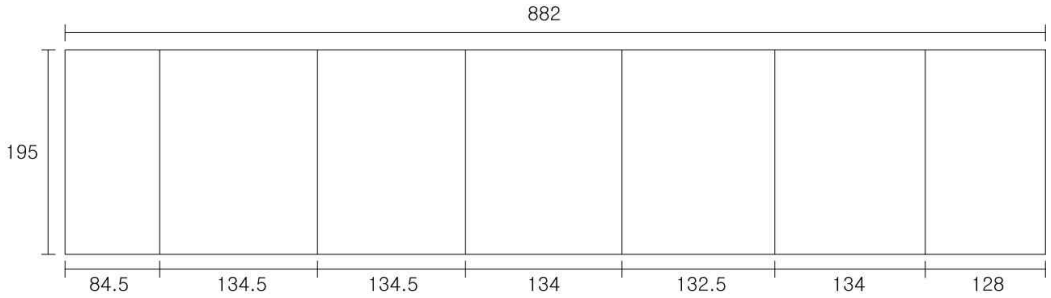
참고 : 희정당 부벽화 현황 1부. 끝.

[참고] 창덕궁 희정당 부벽화 현황

1. 창덕궁 희정당 총석정절경도

- 작 품 명 : 창덕궁 희정당 총석정절경도 (등록문화재 제240호)
- 제작연대 : 1920년경
- 작　　가 : 김규진
- 크　　기 : 882×195(cm)(가로×세로)
- 형　　태 : 부벽 회화 (絹本彩色)
- 소 재 지 : 창덕궁

- 화면의 분할과 치수



- 상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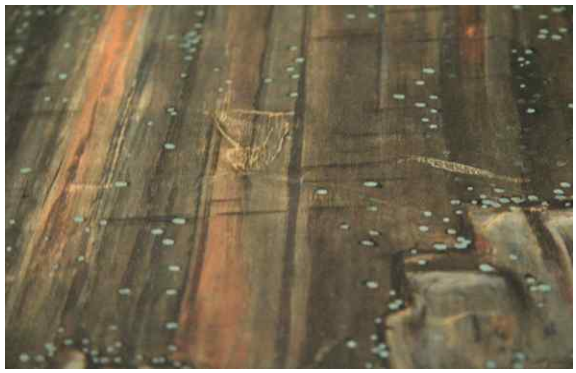
- 전체가 7면의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왼쪽부터 차례로 붙여서 이어져있다.
- 안료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화면 전체가 먼지 등으로 오염되어 변·퇴색되어 있다.
- 작품 하단부의 찢어진 부분을 수리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다.
- 우측상단의 화면이 들떠 있다. 좌측 상단부분도 심하게 찢어진 상태이다.
- 화면과 화면의 연결이 정확하지 않아 연결부의 그림이 어색하다.
- 연결부분의 색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으며 풀이 아닌 화학접착제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 세부현황사진

결손부 수리 흔적

결손부 수리 흔적

결손부의 전 수리 흔적



결손부의 전 수리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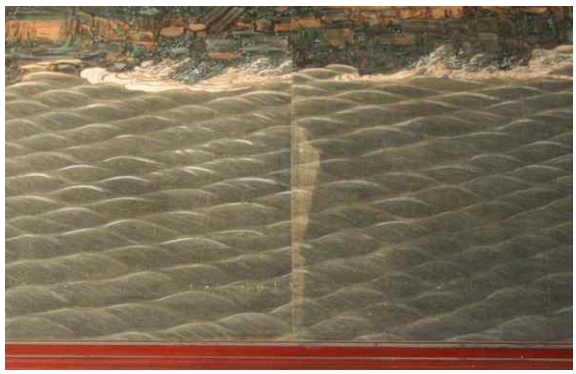
좌측 상단의 찢어진 부분

그림의 좌측이 안으로 말려서 시작됨

들떠 있는 우측 상단 부분

들떠 있는 우측 상단 부분

화면의 연결이 어긋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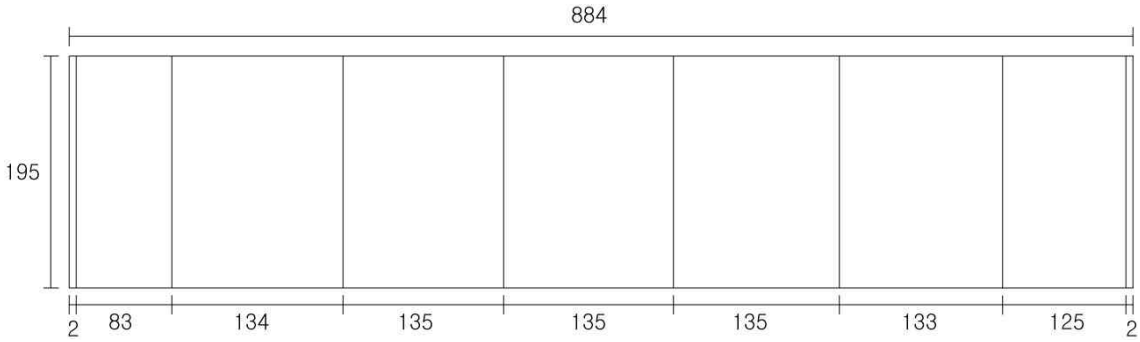


연결부분이 누렇게 변색되어있음. 풀이 아닌 화학접착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2. 창덕궁 희정당 금강산만물초승경도

- 작 품 명 : 창덕궁 희정당 금강산만물초승경도 (등록문화재 제 241호)
- 제작연대 : 1920년경
- 작　　가 : 김규진
- 크　　기 : 884×195(cm)(가로×세로)
- 형　　태 : 부벽회화(絹本彩色)
- 소 재 지 : 창덕궁

- 화면의 분할과 치수



- 상태조사

- 전체가 7면의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왼쪽부터 차례로 붙여서 이어져있다.
- 안료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화면 전체가 먼지 등으로 오염되어 변·퇴색되어 있다.
- 작품 하단부의 찢어진 부분을 수리한 흔적과 긁힌 자국이 많이 보인다.
- 우측상단의 화면이 들떠 있으며 좌측 상단부분도 심하게 찢어진 상태이며 얼룩이 심하다.
- 화면과 화면의 연결이 정확하지 않아 연결부의 그림이 어색하다.
- 연결부분의 색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으며 풀이 아닌 화학접착제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 비교적 화면이 잘 붙어 있으나 화면이 들떠서 처지기 시작한 부분도 있다.

주름

결손부

찢김에 의한 결손

결손부

찢김

찢김

왼쪽 상단의 얼룩

연결이 부자연스러움

좌측 상단에 얼룩이 심하고 화면이 떠 있음

주름

안건번호 근대 2015-04-002

2. 사적 제157호「환구단」주변 현상변경(백화점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환구단」주변 백화점 부속동 증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57호**「환구단」주변에 백화점 부속동을 증축**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외 1인

(2) 대상문화재 : 환구단 (사적 제157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

(3) 신청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 외

○ 신청내용 : 백화점 부속동 증축 및 주변 정비

＊ 백화점 부속동 증축

- 건축면적 : 3,731.35㎡ / 연면적 : 31,293.19㎡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규모/최고높이 : 지상9층 / 39.6m

＊ 주변 경관개선 종합정비 : 탐방객 통로 및 전통경관 조성 등

(4) 심의사항 : 환구단 주변 백화점 증축 및 주변 정비에 대한 적정성 심의

라. 전문가 의견('15.5.19)

○ 문화재위원 ○○○, ○○○, ○○○

- '15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중구)에서 환구단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백화점 증축과 주변 정비 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 예정인 종합정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사항 : 환구단 주변 백화점 증축 관련 추진경과

○ ’15.04.10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위원 ○○○, ○○○, ○○○)

- 제출된 계획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증축 부분에 의해 환구단 주변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환구단 주변의 공간 및 경관 복원·보호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가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5.04.14 :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심의 / 부결(사유 : (사업시행자가 환구단 주변 공간 및 경관 복원 보호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백화점 부속동 증축 신청 규모
  - 건축면적 : 3,731.35㎡ / 연면적 : 31,293.19㎡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규모/최고높이 : 지상9층 / 39.6m

바. 의결사항 : 부결

○ 서울시에서 수립 예정인 환구단 종합정비계획 확정 후 그 부합 여부 검토가 필요

○ 출석 6명, 찬성 6명

안건번호 근대 2015-04-003

3. 사적 제157호「환구단」현상변경(계단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환구단」문화재 구역 내 계단실 증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57호**「환구단」문화재 구역 내 지하 주차장 계단실을 증축**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외 1

(2) 대상문화재 : 환구단 (사적 제157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번지

(3) 신청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번지(당해 문화재 구역)

○ 신청내용 : 호텔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실 증축

- 계단실 면적 : 42.27㎡(현황) → 51.60㎡(계획)

(4) 심의사항 : 계단실 증축에 대한 적정성 심의

라. 전문가 의견('15.5.19)

○ 문화재위원 ○○○, ○○○, ○○○

- 인접한 환구단 동선과 석고단에 지나치게 인접하여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면적 확대를 동반하는 현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인접 환구단 동선과 석고단에 지나치게 인접하여 면적확대는 곤란

○ 서울시에서 수립 예정인 환구단 종합정비계획 확정 선행이 필요

○ 출석 6명, 찬성 6명

안건번호 근대 2015-04-004

4.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현상변경 (가설물 설치 등)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문화재 구역 내 가설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문화재 구역 내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진행을 위한 가설물(무대 등)을 설치** 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대문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사적 제324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3) 신청내용 :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행사용 가설물 설치 등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당해 문화재 구역)

○ 신청내용 :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행사용 가설물* 설치 등

* 가설물 규모 : 너비 17m, 폭 11m, 최대높이 9m

(4) 심의사항 : 가설물 설치 적정성 여부 심의

라. 검토의견

○ 지난해 우리 청의 허가를 받아 추진한 행사와 유사한 규모의 사업 내용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4년도 가설물은 '15년도 가설물과 유사 위치(한센병사 앞)에 동일 규모(넓이 17m, 폭 11m, 최대높이 9m)임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 6명, 찬성 6명

안건번호 근대 2015-04-005

5. 등록문화재 제292호「경주 우안양수장」등록 말소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292호「경주 우안양수장」문화재 등록 말소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292호**「경주 우안양수장」의 문화재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주시장

(2) 대상문화재 : 경주 우안양수장(등록문화재 제292호, 소유자: 한국농어촌공사)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번지

(3) 신청내용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5번지 일원

○ 신청내용 : 문화재 등록 말소

- 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부지 편입 예정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말소에 대한 적정성 심의

라. 전문가 의견('15.05.19)

○ 문화재전문위원 ○○○

-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현지보존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나, 경주 우안양수장은 여전히 문화재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등록말소 신청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이축보존을 포함한 다양한 보존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므로, 등록말소 신청은 타당하지 않음

○ 이전이 필요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우안양수장을 타 부지로 이전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하천 정비를 위한 등록 말소는 타당하지 않으며, 다양한 보존활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출석 6명, 찬성 6명

안건번호 근대 2015-04-006

6. 사적 제438호「안국동윤보선가」보수정비 설계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438호「안국동윤보선가」의 보수정비 설계검토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438호「안국동윤보선가」의 관리사 건립과 관련한 설계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종로구청장

(2) 대상문화재 : 안국동윤보선가 (사적 제438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8-1번지 외

(3) 사업개요

○ 사업예산 : 금700,000천원(국비 490,000천원, 지방비 210,000천원)

○ 사업지침 :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 노후한 사랑채를 보수하고 인근에 관리사를 건립한다.

(4) 사업내용 : 관리사 건립

○ 규모 : 지하1층, 지상 2층(최고높이 7.3m), 건축면적 : 117.0㎡/연면적 : 283.3㎡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심의사항 : 관리사 건립 계획 설계검토

○ 관리사 건립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수목이식, 외부마감

라.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수리기술과 소관 기술지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기술지도 회의에서 관리사 규모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종로구에서 관리사 건립 계획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므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주요 추진경과

○ ‘13.11.25 설계승인 신청(종로구청 → 수리기술과)

○ ‘14.01.21 설계보완 요청(수리기술과 → 종로구청)

- 설계도서에 사랑채 보수외에 관리사 신축도 포함되도록 보완 등

○ ‘14.04.09 조건부 설계승인(수리기술과 → 종로구청)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 이행 등

○ ‘14.06.17 문화재위원회 심의*(근대문화재분과)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건축면적 113.59㎡, 연면적 327.85㎡

- 기술지도단 보강(○○○, ○○○ 위원 추가) 후 지도를 받아 사업 진행

※ 기술지도단(기존) : ○○○, ○○○, ○○○, ○○○

○ ‘14.07.16 기술지도 회의(종로구청, 관계전문가 5명 등 참석)

- 관리사 건축계획의 위치·규모에 대한 재검토 및 재조정 필요 의견 제시

○ ‘14.08.28 기술지도 회의(종로구청, 수리기술과, 관계전문가 6명 등 참석)

- 관리사 예정부지인 사랑채 후면에 현대식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부적정
- 새로운 건립위치가 선정된 후 규모와 재료에 대한 논의 가능 등

○ ‘14.12.01 기술지도회의 개최(○○○, ○○○, ○○○, ○○○, ○○○)

- 사랑채 복원은 一자형
- 관리사 위치는 면적, 높이 등 규모 축소 전제로 사랑채 뒷편 배치

○ ‘15.04.24 기술지도회의 개최(○○○, ○○○, ○○○, ○○○)

- 관리사 규모 축소, 이격거리 확보 등 계획 수정 필요함
- 관리사 현재 위치는 거주자가 요구하는 건물 목적과 규모 수용에 협소하여 위치 선정 등 사업방향을 재검토한 후 시행함이 타당

○ ‘15.05.11 관리사 신축관련 사업방향 결정 요청(종로구청 → 근대문화재과)

○ ‘15.05.13 사업방향 결정 요청 관련 보완자료 제출(도면 및 소유자 의견서 등)

※ 소유자 의견

- 관리사 신규 건립하여 거주공간 이전하고, 안채, 산정채 등을 개방하자는 취지임
- 관리사 위치는 개방 동선과 생활공간 독립성, 효율성 등을 고려 동북쪽 후미진 구석(사랑채 배면)이기를 희망하며, 그 규모는 안채생활공간 규모 유지를 위해 지하층 활용 등 사랑채 배면의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최적화가 요구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및 수리기술과 기술지도단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위원회에서 재검토함

○ 출석 6명, 찬성 6명

안건번호 근대 2015-04-007

7.「서울 가회동 근대 한옥」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 가회동 근대 한옥」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된 **「서울 가회동 근대 한옥」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서울 가회동 근대 한옥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1가길 28-2외 1필지(관련지번 16-11)

○ 소 유 자 : ○○○

○ 수　　량 : 1동(건축면적 102.48㎡)

○ 건립시기 : 1930년대

○ 구　　조 : 한식 목조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5.5.1)

○ ○○○ 문화재전문위원

- 등록 신청 건축물의 현재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한옥이 가회동, 익선동, 삼청동 일대에 다량으로 남아 있음

○ ○○○ 문화재전문위원

- 등록문화재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좀 더 뚜렷한 변화 양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함

○ ○○○ 문화재전문위원

- 최초의 근대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에 의해 1937년 건축된 근대한옥이지만 현존하는 당시의 근대한옥으로서 건축양식이나 기법 등에서 뚜렷한

특성을 지니지 못하였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임

마. 검토의견

○ 북촌지역에는 이와 유사한 근대 한옥이 다수 존재하고,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등록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재조사하여 위원회에서 재검토함

○ 출석 6명, 찬성 6명

붙임 :「서울 가회동 근대 한옥」등록조사보고서 1부.

‘서울 가회동 근대 한옥’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서울 가회동 근대 한옥　(구) -

2. 용　　도 : (현) 주거시설 (원) 주거시설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1가길 28-2외 1필지

4. 소 유 자 : ○ ○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한식 목조

○ 준 공 일 : 1930년대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02.48㎡

○ 층수(높이) : 지상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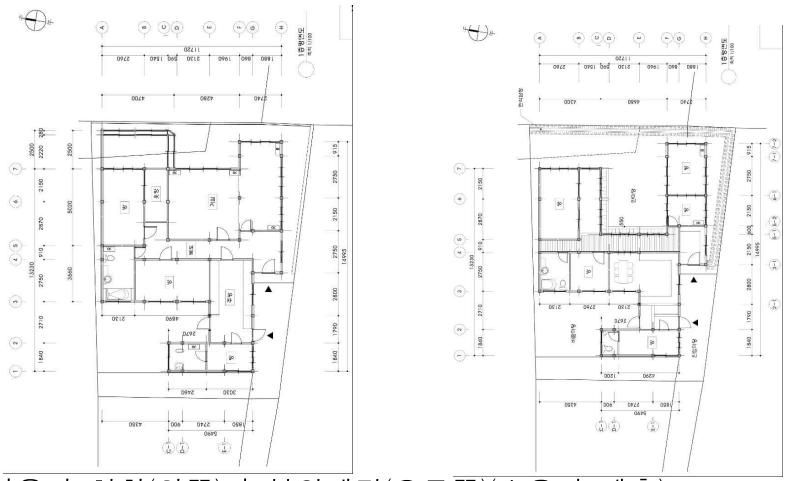
6. 조사자 의견(2015.05.01)

<○ ○ ○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본 건축물(서울 가회동 이씨 가옥)은 (그 일부 혹은 전부가) 1937년 정세권이 지은 주택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 최초 근대한옥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으로써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주택의 경우 그 일부만을 정세권이 지었는지(최초 토지 면적 37평), 전부 정세권이 지었는지(토지면적 205㎡, 65평) 불분명하다. 특히 이 건축물의 경과 과정에서 초기 37평에서 205㎡로 변화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배치 평면에서 두 채의 한옥이 합쳐진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한다. 초기 출입문은 각각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지 면적에서도 당시의 다른 사례보다 매우 큰 점에서도 2 채의 주택을 결합시킨 것은 아닌가 의심되고 있다.



가옥의 현황(왼쪽)과 복원예정(오른쪽)(소유자 제출)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1930년대 도시형 근대한옥으로써 도시의 좁은 대지 안에 밀실하게 지었다. 외부로 노출된 처마는 겹처마이나 내부쪽은 홑처마이다. 이는 다른 장식적 요소(소로)와 함께 분양주택의 상업적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벽은 벽돌로 치장되었고 모든 창호는 원형을 상실하였다. 실내의

천장이나 벽면 바닥 등에서도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다. 증축부분에서도 어디까지 안마당이었는지, 추정하기 힘들다.
특히 일부 건물에서는 굴도리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다른 쪽은 민도리를 사용하여 신축 당시 별도의 건물로 짓지 않았는가 의심해볼만 하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육안으로 파악한 전체적인 원형보존은 지붕과 처마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크게 부족하다. 안마당의 증축부분과 각방의 실내에서 심한 변형을 보이고 있다. 원형으로 보이는 지붕 및 처마에서 심한 노후화가 나타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가회동 한옥지구 내에 위치하여 주변의 한옥들과 함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다. 당해 건축물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될 수 있도록 주변 및 인근의 정세권주택을 참고한다면 등록문화재로서 보존관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형상실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거의 신축에 가까운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검토 필요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추가 검토 필요
다. 기타사항: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근대 한옥 사업자 정세권이 건축한 주택들은 대량으로 남아 그 보존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익선동의 경우 100여 채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가회동뿐만 아니라 삼청동에도 다량 남아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이 건축물은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안으로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할만하나 건축물의 현재의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가회동 31-66 한옥은 소위 북촌지역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3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한옥은 북촌지역을 개발했던 정세권(鄭世權)이 소유했던 집으로 193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거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벽돌과 타일 그리고 유리창 등을 통해 근대기 건축 재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가회동 31-66 한옥은 ㄷ 자형의 본채와 부속채를 결합하여 한 동(棟)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 한옥이 어떻게 변형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기본적으로는 목조 가구식의 심벽구조를 갖고 있는 한옥이다. 외부 벽면에는 벽돌 조적벽이 첨가되었다. 내부는 주방에 흰색 타일과 소위 곰보 유리라고 칭하는 근대기의 유리가 사용되었다. 평면형식도 현관이 사용되었고 속복도 형식의 복도가 사용되었다. 또 벽장의 형식도 부뚜막의 상부를 이용하는 함실 형식에서 온전하게 벽면 전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평면구성은 주방을 중심으로 본채 공간과 부속공간이 나누어진다. 주방에 딸린 방과 화장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집안 일을 도와주는 가정부를 위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또한 주방에 딸린 별도의 마당을 갖고 있어 전통가옥의 안마당 혹은 후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이 건물은 북촌을 개발했던 정세권의 소유하였던 집으로 1937년 8월 31일 가옥 보존

등기를 하였다. 1936년 6월 가회동 31-2에서 분할한 이후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4번에 이르는 소유주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1930년 후반 이후 근대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주거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물이 사용되지 않아 있어 노후화된 상태이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이 북촌 한옥지구이기 때문에 보존 및 활용의 여건은 비교적 좋다고 생각한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1930년대 이후 북촌지역에서 주거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확한 기록이나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가회동 31-66 및 16-11번지의 가옥이 북촌지역이 위치하고 북촌을 개발한 정세권이 소유하였던 점 그리고 벽돌과 유리, 타일, 거실 쪽의 전망을 위한 통창이 설치되는 등 근대기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나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좀 더 뚜렷한 변화 양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 ㅇ 북촌의 대표적 한옥 골목이자 한옥 밀집지역인 31, 33번지 일대에 위치한 근대한옥
- ㅇ 1930년대 개량한옥의 건축, 보급에 힘썼던 개발업자 정세권(鄭世權)에 의해 1937년 건축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ㅇ 1930년대 서울 인사동, 가회동, 익선동, 명륜동, 성북동 등지에서 다수의 개량한옥을 주도적으로 건설, 공급함으로써 최초의 근대 부동산 개발업자로 평가받는 정세권(鄭世權)에 의해 1937년 건축된 개량한옥
- ㅇ 정세권이 개량한옥에서 적용하였던 주요 건축기법(다수의 채광창 설치, 대청의 창호설치, 화장실과 부엌의 실내설치, 현관 설치 등)이 반영된 근대한옥
- ㅇ 본래 안마당을 중심으로 ㄷ자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출입구쪽으로 부엌 부분이 연장, 돌출된 형태의 개량한옥이었으며, 현재는 안마당 부분은 거실로 증축된 상태
- ㅇ 부엌 하부에는 지하대피소 개념의 방공호를 설치
- ㅇ 1937년 건축된 후 기본적 구조체와 평면구조를 바탕으로 그 동안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내외부 마감, 벽체, 창호, 설비 등이 지속적으로 개보수된 상태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ㅇ 그동안 2년여 동안 거주자 없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현재 전체적 유지관리 상태는 불량한 상태
- ㅇ 기본적 구조체와 평면구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그 동안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내외부 마감, 벽체, 창호, 설비 등이 지속적으로 개보수되며 건축원형이 다소 훼손된 상태
- ㅇ 본래 ㄷ자 평면의 안마당 부분을 후에 거실로 증축하고 거실 외곽에는 난방을 위한 라디에이터를 설치하였으며 지하에 기름보일러를 설치
- ㅇ 외벽의 목재 기둥과 창호, 거실부 목재처마 등의 부위에서는 부식과 노후화로 인한 원형 훼손 현상이 발생, 진행되고 있는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북촌 지역은 대표적 한옥밀집지로서 지자체가 보존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소유주도 보존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

○ 현재 주진입 골목인 북촌로 11가 길로부터 대문으로 진입한 후 31-101번지 한옥과 31-67번지 한옥의 전면을 지나야만 가회동 이씨가옥의 현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을 형성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주는 등록 후 개보수하여 거주하다 5~10년 후 본인의 거처할 별도의 주택이 확보되면 가회동 이씨가옥은 건축 박물관이나 갤러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안

○ 현재 전제적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활용을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보수가 필수적인 상태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소유주가 제시한 5~10년 후 건축 박물관이나 갤러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본인이 거처할 별도의 주택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실현 가능한 계획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건축 박물관이나 갤러리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소유주가 전시할 소장품 목록이나 구체적인 전시, 운영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보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 이상의 사항으로 판단할 때 소유주는 등록후 보조를 받아 보수하여 본인이 거주할 것을 주목적으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등록문화재 중에는 80건 정도의 주거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근대한옥이 25건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1930년대 근대한옥으로는 서울 돈암장(1939년 건축), 김제 신풍동 근대한옥(1939년 건축),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1930년대 건축), 서울 명륜동 장면가옥(1937년 건축) 등이 있음.

○ 가회동 이씨가옥은 이상의 근대한옥들에 비해 건축양식이나 기법 등에서 뚜렷한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가회동 이씨가옥은 최초의 근대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에 의해 1937년 건축된 근대한옥이지만 현존하는 당시의 근대한옥으로서 건축양식이나 기법 등에서 뚜렷한 특성을 지니지 못하였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

○ 또한 북촌지역에는 이와 유사하지만 건축원형의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한 근대한옥이 다수 현존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서울 계동 배렴가옥, 서울 계동 근대한옥 등)는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상태

○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가회동 이씨가옥은 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안건번호 근대 2015-04-008

8.「서울 탑골공원 구 정문」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 탑골공원 구 정문」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된 **「서울 탑골공원 구 정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장

(2) 대상문화재

○ 명　　칭 : 서울 탑골공원 구 정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77-1

○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 수　　량 : 기둥 4주

○ 건립시기 : 1910년경 건립, 1969년 이전

○ 구　　조 : 석조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5.5.1)

○ ○○○ 문화재전문위원

- 본래 탑골공원에 있던 정문의 철문은 멸실되었으며, 현재 기둥만 동숭동 사대부초 정문에 남아 있고, 기둥 상부 전등도 사라지고 없으며 새 철문을 설치하는 과정에 기둥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으며, 그 관리도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 문화재전문위원

- 3.1운동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탑골 공원에서 옮겨져 왔고, 철장식의 문과 전등이 소실되었고, 러스티케이션 처리 등이 손상되는 등 문화재적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함

○ ○○○ 교수

- 현재 서울사대부속 초등학교의 정문으로 남아 있는 구 탑골공원의 4개의 기둥은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함. 기둥 상부 전등이 현재 없어졌으며, 기둥 일부도 파괴되었음.

마. 검토의견

○ 정문은 건립 당시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며, 원 위치가 아닌 현재의 위치로 이전된 것이므로 등록 가치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서울시 지정 또는 “미래유산” 등으로 보존할 것을 권고함

○ 출석 6명, 찬성 6명

붙임 :「서울 탑골공원 구 정문」등록조사보고서 1부.

‘서울 탑골공원 구 정문’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서울 탑골공원 구 정문　(구) 탑골공원 정문

2. 용　　도 : (현) 교육시설　(원) 문화집회시설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77-1

4. 소 유 자 : 서울대학교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석조

○ 준 공 일 : 1910년경 건립, 1969년 이전

○ 수량 및 면적 : 기둥 4주

○ 층수(높이) : 2.65m

6. 조사자 의견(2015.05.01)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현재 서울대학교 사대부속초등학교(부속중학교)의 교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문기둥은 본래 파고다공원(탑골공원)의 정문으로 사용되던 돌기둥이었다.

본래 탑골공원(1897)이 조성된 자리는 원각사(圓覺寺)가 있던 자리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사동(大寺洞)이라 하였다. 이 원각사는 고려 때 흥복사(興福寺)라는 사찰이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1464년(세조 10) 5월 세조가 원각사의 창건을 결정하고, 1467년 사월초파일에 10층석탑의 완공과 함께 낙성되었다. 이때 주변의 민가 200여 호를 철거하여 사역(寺域)을 크게 넓혔다고 한다. 이후 원각사는 국가의 안녕과 국왕의 평강(平康)을 비는 국왕의 원찰·국찰(國刹)로서의 기능을 했다.

그런데 성종 때(1488년, 성종 19)에 화재로 소실되자 중수하도록 명했지만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이 이 절을 연방원(聯芳院)이라는 기방(妓房)으로 만들고, 장악원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했다. 당시 유사(儒士)들의 계속적인 불교 배척운동과 연산군의 적극적인 훼철(毁撤)이 이 사찰의 폐사를 촉진시켰다. 또 1512년(중종 7)에는 원각사를 헐어 재목을 나누어줌으로써 절이 없어지게 되었다. 더러는 1554년(명종 9) 대화재(大火災) 때까지는 잔존이 상당히 남아 있었다고도 전한다. 이때부터 사찰 터는 근 300년을 폐허로 남아 있게 되었다.

본래 원각사는 국가의 안녕과 국왕의 평강(平康)을 비는 국왕의 원찰·국찰(國刹)로서의 기능을 했다. 말하자면 세조가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원각사의 창건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진 원각사 터에 영국인 재정고문 맥레비 브라운(John Meleavy Brown)이 고종에게 제안하여 1897년에 탑골공원을 조성했다.

<그림 35> 1780년에 제작된 <한양전도>(부분)의 중심에 원각사의 위치가 [탑동]이라 표기되었으며 탑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 그 앞 왼편에 철물교가 그려져 있고 정조 대에서는 여기가 상소, 상언의 접수 터이었다고 한다. 원각사 터는 이미 폐허가 되었으나 그 영역은 명확하게 그려놓고 있다. 이 자리에 탑골공원을 설치한 것이다.

맥레비 브라운(John Meleavy Brown)의 제안을 받아 고종이 '시민공원'을 조성했다고 알려졌지만 그 실무주역이 브라운과 당시 한성판윤 이채연(李采淵)이 시행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정동의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서양건축의 전이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박론. 1990.)에서 볼 수 있다.

<브라운경이 내한한 것은 1883년으로, 조영조약(1873), 거문도 불법점령(1885) 이후의 일이다. 법학박사이기도 한 그는...(중략)... 도시, 건축분야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 그는 서울을 아름답게 하거나 조선을 진보시킬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그는 아주 재능이 있고 정직한 조선인인 이채연(李采淵)과 힘을 합쳐 거리를 개선하고 하수시설을 개량하고 물의 공급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했으며...][1)]

이채연은 한성판윤(1895. 5. 29. ~ 1900. 8. 16)으로 한양을 미국식 도시로 개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브라운에 있어서 또 한사람의 파트너는 남궁억(1863-1939)이었다. 개화 선각자 남궁억(南宮檍)은 30세 되던 해에 그들과 한 팀을 이루었다. 그는 1895년 내부 토목국장이 되었다.

브라운, 이채연, 남궁억의 도시개혁 팀 사이에 심의석(沈宜碩)도 있었다. 그는 내부 소속의 건축기사였다. 이 4인은 수도 한양의 개혁에 적극 나섰다. 브라운은 종로 네거리의 탑동공원(Pagoda Public Park, 1896)의 일을 스스로 감역하기도 했으며, 전통적인 건물 팔각정과 양관을 세웠다.

브라운은 한강 마포(나루)에 세관도 설치한 바 있다. 그의 업무의 피크는 덕수궁 내 석조전 건립이었다. 그와 사바찐에 의해 설계계획안이 입안되다(1900-1910). 브라운의 공적은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남다른 것이다.

- 탑골공원 팔각정은 한말 목수 최백연(催伯淵)이 지었다.[2)3)]

---

1) 회고록. 구한말 비록(하). 186p. 김정동. 위 논문. 재인용.

2) 배희한(구술)/이상룡(편집).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렀네>. 뿌리깊은나무. 1981. 배희한은 최백연(催伯淵)을 최백현이라고 발음하였다. 배희한은 기념비전에 대해서도 최백연(催伯淵)이 공사한 것으로 구술하였다. 그러나 심의석(당시 내부 기사)이 공사하고 최백연(催伯淵)이 목수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탑골공원 조성은 190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남문과 북문, 그리고 담장이 먼저 만들어졌다. 이후 팔각정이 들어서고(1902-03), 음악당이 동북쪽 담장에 건축되었다.(1904)
- 1913년에 일반에게 개방하면서 화려한 정문(폭 23m의 반원형) 설치, 이용자 편익 및 휴게시설(사아옥, 온실, 공중변소, 벤치 등) 보완하였다.
- 1914-16년에는 끽다점(청목당) 및 섬과 다리를 축조한 인공 연못 조성, 사아옥, 공중변소, 관리사무소 추가 설치되었으며 호자식음악당 철거되고(1916), 그 자리에 용산주차군사령부에서 가제보형 음악당이 이축되었다.
- 그러나 1919년 3.1운동으로 일제는 탑골공원을 폐쇄하였으며
- 1928년에는 그 관리권을 총독부에서 경성부청으로 이관하고, 다시 개방하였다가 1933년에는 아동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 해방 후 서울시 파고다공원 현대화 개수 및 정문 교체사업(1967)으로 기존의 정문은 1969년 3.1절 5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특별시가 독립선언기념탑을 세우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높여주기 위해 이 기둥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문기둥으로 기증하였다
- 1974년에는 서울대학교가 서울 신림동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당시 초등학교) 교문기둥이 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탑골공원 정문은 1913년에 설치된 것으로 그 양식적 특징은 덕수산장이나 용산 총독관저의 정문 등에서 나타난 형태와 유사하다. 다만 초기 철문은 아르누보형식을 지녔다고 판단되나 현존하지 않아 이 정문의 양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림 36 용산 총독관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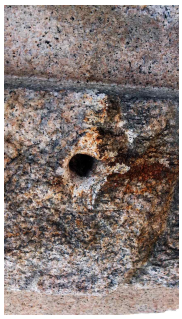
그림 37 화재 후 송석원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탑골공원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문으로 이전 후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서울사대부초교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① 본래 탑골공원에 있던 정문의 철문은 멸실되었으며
② 현재 기둥만 4대 동숭동 사대부초 정문에 남아 있고
③ 기둥 상부 전등도 사라지고 없으며
④ 새 철문을 설치하는 과정에 기둥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으며
⑤ 그 관리도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3) . <한국근대화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활동에 관한 연구>. 박론. 1989.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이 정문 기둥의 문화재적인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나 관리자(소유자)는 보존의 지가 있다고 사료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

다. 기타사항 :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따라서 현 서울사대부설 초·중학교 정문은 탑골공원이 복원될 것을 대비하여 그 보존이 요구되나 지자체(서울시)가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탑공공원으로 이축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 참고 문헌 : 김해경.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한국전통조경학회. Vol 32, No 2, 2013. 6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및 여자중학교의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4개의 사각기둥은 원래 파고다공원 즉, 탑골 공원의 정문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4개의 기둥을 통해 중앙의 양쪽 여닫이로 되어 있는 중앙 어칸을 중심으로 양쪽에 한쪽 여닫이로 되어 있는 협칸 구성을 하고 있다. 화려한 철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던 원래의 문은 소실되었다. 또한 원래 기둥 위에 있었던 원형의 전등 등은 사라지고 없다. 1969년 3.1절 50주년을 기념하여 현 위치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77-1번지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탑골공원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및 여자중학교의 정문은 원래의 유구인 4개의 사각기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성형식은 주초

(base)와 주신(shaft) ,주두(capital)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주초는 땅 속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주초의 크기는 625 mm x 625 mm이고 주신의 크기는 525mm x 525mm 4각 기둥으로 외곽에 몰딩을 돌렸다. 기둥의 높이는 현재 2650mm 이다. 주두 부분의 상부에 있었던 원형의 전등은 사라지고 없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탑골공원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이 4개의 사각기둥들은 현 위치에 옮겨져 오면서 주초 부분이 지면 하부로 묻혔다. 기초부분은 이전이 되지 않아 원래의 주초가 기초 부재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화려한 철 장식의 문과 전등은 현재의 위치로 옮기기 전인 1960년 5월 1일 조선일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또한 기둥 중앙부의 러스티케리션(rustication) 처리는 학교 교명을 설치하기 훼손되어 있다. 또한 3.1 운동으로서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탑골공원에서 옮겨졌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에 대한 의지가 있고 보존 및 활용의 여건은 비교적 좋다고 생각한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탑골공원의 정문이 이 공원 안에서 행했던 3.1 독립선언문과 직접적인 연관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탑골 공원이 아닌 현 위치로 옮겨져 와서 문화재적 가치는 손상되었다고 생각한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3.1운동의 장소적 의미가 있는 탑골 공원에서 옮겨져 왔고, 철장식의 문과 전등이 소실되었고, 러스티케이션 처리 등이 손상되는 등 문화재적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ㅇㅇㅇ 교수>

1) 개요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부속중학교)의 교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문기둥은 본래 파고다공원(탑골공원)의 정문으로 사용되던 돌기둥이었다. 탑골공원은 조선시대 세조대에 세워졌다가 16세기 중엽 이래 폐허로 남아있던 원각사 터에, 1897년 조성되었다. 1913년 일반에게 개방되면서 정문 등을 설치하였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공원을 폐쇄하였다가 1933년 아동공원으로 단장한 바 있었다. 해방 이후 서울시 파고다공원 현대화 개수 및 정문 교체사업(1967)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정문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문기둥으로 기증하였다. 공원에는 1969년 3.1절 5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특별시가 독립선언기념탑을 세웠다. 1974년에 서울대학교가 서울 신림동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당시 초등학교) 교문기둥이 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현재 서울사대부속 초등학교의 정문으로 남아 있는 구 탑골공원의 4개의 기둥은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기둥 상부 전등이 현재 없어졌으며, 기둥 일부도 파괴되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관리자인 서울사대 부속 초등학교의 보존의지가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

다. 기타사항 :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현재 서울사대부설 초·중학교 정문은 탑골공원이 복원될 것을 대비하여 그 보존이 요구되나, 지자체(서울시)에서 보존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탑골공원의 본래 자리에 이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안건번호 근대 2015-04-009

9.「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된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희대학교

(2) 대상문화재

○ 명　　칭 :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소 유 자 : 학교법인 경희학원

○ 수　　량 : 1동(건축면적 1,859.26㎡, 연면적 7,083.57㎡)

○ 건립시기 : 1956년 준공, 1975년 증축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5.5.1)

○ ○○○ 문화재전문위원

- 초창 시 이후 1975년대 증축 이후에도 그 변형은 찾아보기 힘들며 건물 관리가 철저하다고 사료됨

○ ○○○ 문화재전문위원

- 경희대 본관은 삼각형의 박공지붕을 중심으로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였으며, 태극과 무궁화를 활용한 주두를 구성하여 한국적 고전주의 건축을 구현한 건물로서 의미를 지님

○ ○○○ 문화재전문위원

-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로, 교육시설 또는 대학 건물로서는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유사 사례가 없는 독특한 건축양식과 기법을 적용하였음

마. 검토의견

○ 대학 관련 건축물은 10여건이 문화재로 기 등록되어 있으나, 관계전문가 조사 의견과 같이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은 유사 사례가 없는 독특한 것이므로 등록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등록 범위는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등록 제94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건립된지 50년 이상 경과한 중앙부(1956년 건축)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바. 의결사항 : 보류

○ 자료 추가조사하여 재검토함

○ 출석 6명, 찬성 6명

붙임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등록조사보고서 1부.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구) -

2. 용　　도 : (현) 교육연구시설 (원) -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4. 소 유 자 : 학교법인 경희학원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 공 일 : 중앙부 1956년, 양측 익부 : 1975년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859.26㎡, 연면적 7,083.57㎡

○ 층수(높이) : 지상 5층 / 지하 1층

6. 조사자 의견(2015.05.01)

<○○○ 문화재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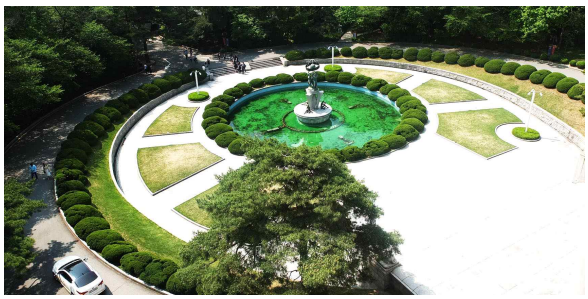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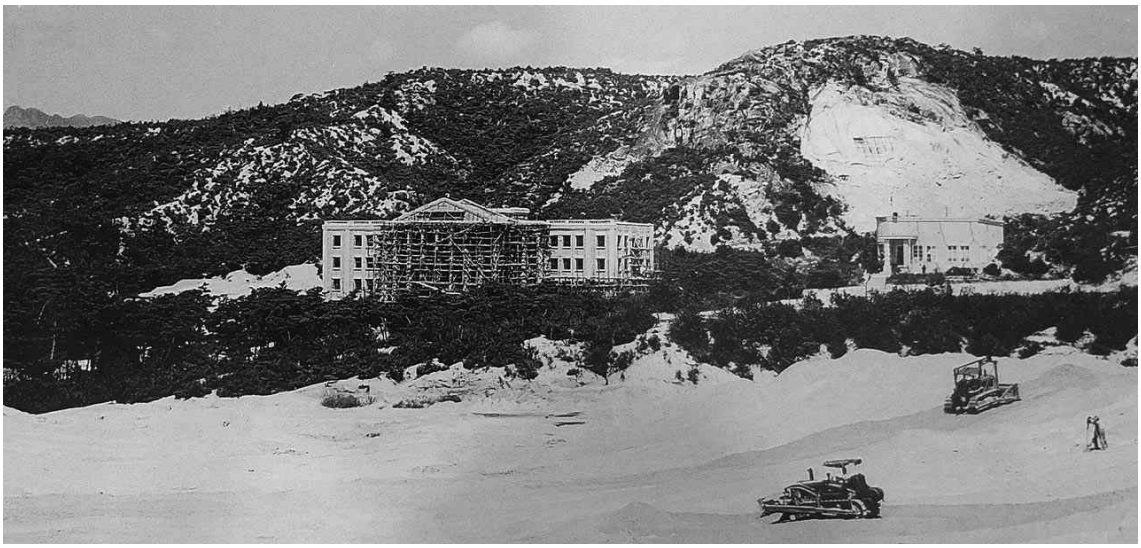
본 건축물은 경희대학교를 상징하는 본관(본부) 건물로 서양의 코린트 양식을 도입하여 이 학교의 설립자가 구상하여 지은 건축물이다. 대학의 건축물은 일반 상업적 혹은 주거 건축물처럼 비영구적 건축물이 아니라 백년대개의 건축물로서 영구적 존치라는 원칙으로 볼 때 시대의 건축 흐름에서 벗어나 역사적 건축양식에서 그 모티브를 찾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1950년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0년대계의 교육시설로 이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로 하여금 시대적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사료됨.

1970년대 양쪽 날개부분을 증축하여 현재와 같은 우람한 건축물로 완성하여 우람한 학교 본관건물로 세계적인 사례와 같이 발맞추어 가려는 설립자의 의지가 엿보임

건축물의 앞 정원과 분수대공원도 등록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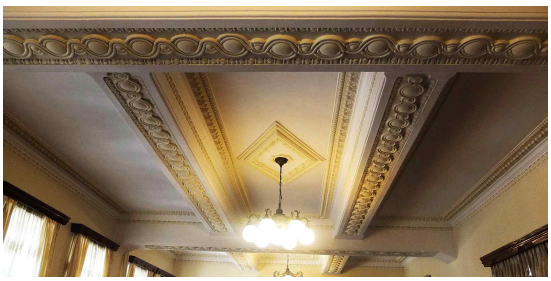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코린트 양식, 석재마감, 열주 건축물, 좌우 대칭 존엄 건축물.

건축물의 내부에 수점의 그림(동양화)이 걸려 있으며 이를 등록문화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검토 필요, 혹은 별개의 문화재로 등록시킬 것인가 검토 필요.

천장부분의 몰딩의 경우 연륜에 의해 노후화 및 박리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관리 철저 부분으로 주지 필요.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초창 시 이후 1975년대 증축 이후에도 그 변형은 찾아보기 힘들며 건물관리가 철저하다고 사료됨. 다만 옥상(5층)에 있는 통신실 및 창고(좌우 2개동, 가건물)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혹은 등록문화재에서 제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종합대학 안의 학교 본부로 학교의 보존관리가 철저하고 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환경은 우수하다고 사료됨, 특히 학교의 상징적 건축물로 보존관리에 학교측의 철저함이 있다고 사료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매우 적합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

다. 기타사항 :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건축물 전체 및 건물 앞 정원과 분수대, 뒤쪽 굴뚝 포함 등록이 가하다고 사료됨.
- 건물 내부의 동양화 그림 수점(검토 필요)
- 몰딩 및 천장 등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경희대학교 본관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진리의 탐구와 인격적 인간을 육성하는 전당으로서의 경희대학교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1953년 착공하여 1956년 7월 준공하였고 1975년 2월 증축을 하였다. 초기 본관 전면에는 14개의 원주로 입면을 구성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14개의 행정구역을 상징하여 14개 도에서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적 동량을 육성한다는 교육입국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고 한다. 본관 앞 정원과 분수대 공원 그리고 경희대의 상징인 사자상과 어우러져 경희대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기본적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마감을 석조로 하였다. 1956년 준공 시에는 삼각형의 박공(pediment) 아래 전면에 7칸을 갖는 8개의 원주와 그 뒤로 6개의 원주를 배치하여 총 14개의 원주를 설치하였다. 3각형의 페디먼트를 갖는 방식은 향후 1975년 증축 시에도 이어져 중앙과 양쪽으로 박공면을 강조하여 경희대학교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중앙과 양쪽의 익부를 차이가 있게 하기 위해 중앙부는 8칸 구성으로 하였고 양익부는 7칸씩으로 구성하였다. 원주의 높이는 16.3 m 직경은 1.36 m에 달한다. 이러한 기둥의 높이로 건물이 전체적으로 기둥이 수직적으로 강조된 느낌이다. 주두부분의 장식은 코린트식 구성의 주두에서 벗어나 태극과 무궁화를 응용하여 조각하였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그리스의 코린트식 건축법을 한국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삼각형의 페디먼트에는 밝은 사회, 평화세계, 문화세계를 창조한다는 경희대의 미래를 상징하는 부조 조각이 있다. 경희대 본관의 특징 중 하나는 내부 천정 몰딩 등이 석고 플라스터 장식이므로 이루어져 독특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경희대 본관은 1953년 착공하고 1956년 준공한 이후 1975년 2월 증축을 하였다. 이

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비교적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 환경

경희대 본관은 경희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의지가 많고 보존 및 활용의 여건이 좋다고 생각한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한국인 건축가 박길용에 의한 고려대학교 본관, 서관, 대학원 건물이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석조건축과는 또 다른 건축으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경희대 본관은 3각형의 박공지붕을 중심으로 정면 8칸의 중앙과 양쪽의 7칸씩 구성을 통해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또 태극과 무궁화를 활용한 주두를 구성하여 한국적 고전주의 건축을 구현한 건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 내부는 천정 등에 석고플라스터로 되어 경희대 본관 만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의 대학 이념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만 등록 시 처음에 준공하였던 부분과 1975년 2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의 표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경희대 본관 (증축한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등록을 권장함)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 ㅇ 경희학원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1956년 완공된 경희대학교 본관 건물로 경희대학교의 상징적 건물
- ㅇ 고대 그리스식 주범에 바탕을 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건축원형의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
- ㅇ 교육시설 또는 대학 건물로서는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서 등록된 유사 사례가 없는 독특한 건축양식과 기법을 적용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ㅇ 대학 본관으로서 상징성, 장엄성, 기념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 대칭성, 정면성 등을 강조하며 서양식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건축
- ㅇ 전면 중앙의 원형 광장과 분수대 설치, 정면 중앙의 높은 진입계단, 정면 중앙의 대형 열주랑 현관 등에 의해 건물의 정면성과 대칭성을 의도적으로 강조
- ㅇ 외관에서는 페디먼트(pediment), 열주랑(peristyle), 주범(order), 엔타블레춰 등 고대 그리스 건축기법이 특징적이며 내부에서는 천장의 정교한 플라스터 장식이 특징적
- ㅇ 실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지만 외관은 서양식 석조 양식으로 건축하였으며, 고대 그리스 코린트식 주범을 모방하고 주두에 태극과 무궁화 문양을 새긴 주두를 설치
- ㅇ 1956년 7월 중앙부를 최초 완공하였고 1975년 2월 양측 날개부를 증축, 완공하여 대칭적 형태를 완성
- ㅇ 건물 내부 1층 현관, 2층 총장집무실 및 각층 복도의 천장에 장식된 플라스터 장식은 문양이 매우 정교하고 화려한 기법을 적용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축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학 본관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대학의 상징적, 중심적 건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

○ 그 동안 대학측에서 본관으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왔으므로 특별히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부분은 거의 없음

○ 외벽 창호, 내부 천장, 화장실, 냉난방 설비, 전기통신 설비 등은 현대적 재료와 공법으로 개보수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학측에서 본관 건물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본관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 관리할 예정이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매우 양호

○ 대학 캠퍼스 내에서 주변에 여유공지를 확보하고 조경이 충분하므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주변환경도 양호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학측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관 용도로 활용, 보존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계획은 건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키는 동시에 건축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대학측에서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학 본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 보존, 관리한다는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 현재로서는 전체 건물중 1956년 완공된 중앙부만이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이 되지만, 등록될 경우 1975년 완공된 양쪽 날개부에 대해서도 건축원형의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대학건물로는 서울대학교 구공과대학 본관 및 교사, 부산대학교 구본관,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 등 14건 정도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상태

○ 사적으로는 구서울대학교 본관, 고려대학교 본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 스팀슨관 등이 지정된 상태

○ 현재 대학건물 등록문화재 중에서는 경희대 본관과 같은 고대 그리스식 주범에 바탕을 둔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등록문화재는 아니지만 서울 한양대 본관(1957년 건축)이 경희대 본관과 유사한 건축양식으로 평가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경희대 본관은 고대 그리스식 주범에 바탕을 둔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이며, 교육시설 또는 대학 건물로서는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유사 사례가 없는 독특한 건축양식과 기법을 적용

○ 현재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장래 문화재로서 활용계획의 구체

성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희대 본관은 등록문화재로서 등록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며, 단 등록범위는 1975년 증축, 완공된 양측 날개부는 제외하고 1956년 건축된 중앙부만을 포함하도록 함
- ○ 외관에서는 정면의 열주랑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이 필수적
- ○ 내부에서는 1층 주출입구 현관 및 계단, 천장의 플라스터 장식, 복도 내벽의 목재창호, 설립자 집무실 등의 보존이 필요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건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속하기 위해 본래의 명칭이자 현재의 명칭 그대로 ‘경희대학교 본관’으로 등록함이 타당함

안건번호 근대 2015-04-010

10.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1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성암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제작자	재질	소유자	소 재 지	비고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	1점	세로553×가로305㎝	1928년	향암 성엽	면본 채색	대성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6-1 대성암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5.04.10.)

○ ○○○ 위원

- 20세기 전반 경의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 말기~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경제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작품이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 있음.

○ ○○○ 교수

- 대성암 소장 괘불도는 근대 불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사 화파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성시기와 봉안장소가 명확하

게 밝혀져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근대기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대까지 화맥이 이어지고 있는 금호 약효의 제자인 향암 성엽이 제작한 불화로 금호 약효 화파의 도상과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됨. 또한 강렬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장낭도 원래 모습대로 잘 남아 있어 근대기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마. 검토의견

○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시대적 특징을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바.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위원 :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 ○○○ 교수 : 고양 대성암 괘불도
- ○○○ 강사 : 고양 대성암 괘불도

○ 근대문화재과 : 고양 대성암 괘불도

사.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문화재 명칭은 추후 재검토하여 정함

○ 출석 6명, 찬성 6명

붙임 :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조사보고서 1부.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6-1 대성암
3. 제 작 자 : 향암 성엽
4. 소 유 자 : 대성암
5. 조사자 의견

<ㅇㅇㅇ 위원>

1) 현황

ㅇ 경기도 고양 북한산에 위치한 대성암에 소장된 괘불도로서, 1928년에 금어 향암 성엽(金魚 香庵 性曄)이 단독으로 조성하였다. 괘불도는 여러 장의 면을 붙여 만든 화면에 진채로 채색되어 있는데, 윗쪽에는 반달 형태의 천축, 아래에는 원형의 지축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상단 좌우에는 천으로 만든 복장낭(腹藏囊)이 2개 달려있다. 복장낭은 앞면에 금박으로 囍(희)자가 적혀있으며 뒷면에는 묵서 범자(梵字)와 '소화삼년(1928)진하'라는 한글이 적혀있어 이 복장낭이 괘불도와 함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좌측 복장낭에는 2개의 술, 우측 복장낭에는 각각 1개의 술이 달려있으며, 복장물은 각각 중앙에 천원(天圓)과 지방(地方)으로 묵서되어 있는 두 개의 한지로 감싼 후 오색실로 감아놓았다. 그 안에는 각각 東(동), 西(서), 南(남), 北(북), 中(중)이라고 적힌 한지를 사각함의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실을 넣었으며, 여러 색물은 한지에 묵서로 써서 대신하였다. 이것을 '八葉蓋(팔엽개)'라고 쓴 종이로 다시 한 번 감쌌다. 실제 소입 제색물(所入 諸色物) 대신 비록 한지에 글을 써서 넣었지만 그 내용이나 절차는 『조상경』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묵서로 적힌 소입 제색물(所入 諸色物)은 다음과 같다.

구분		東	南	西	北	中
1	五鏡	方鏡	三角鏡	圓鏡	半月鏡	圓鏡
2	五輪種字	靑綃aṁ輪	紅綃rāṁ輪	白綃vāṁ輪	黑綃hāṁ輪	黃綃khāṁ輪
3	報身呪	報身ā字	報身vā字	報身rā字	報身hā字	報身khā字
4	化身呪	化身a字	化身ra字	化身pa字	化身ca字	化身na字
5	眞心種字	綃輪hūṁ字	紅綃輪traḥ字	白綃輪hrīḥ字	黑綃輪aḥ字	黃綃輪vāṁ字
6	五寶甁	靑色瑪瑙寶甁	黃色摩尼寶甁	紅色珊瑚寶甁	綠色琉璃寶甁	白色水晶寶甁
7	五穀	大麥	稷	稻	綠豆	摩
8	五寶	生金	眞珠	生銀	琉璃	琥珀
9	五藥	人蔘	甘草	柱心	阿梨	附子
10	五香	靑木香	丁香	蕾香	沈香	乳香
11	五黃	大黃	雄黃	小黃	雌黃	牛黃

구분		東	南	西	北	中
12	五芥子	蒔蘿靑芥	紫芥	白芥	蔓菁芥子	黃芥
13	五彩幡	靑綵幡	紅彩幡	白彩幡	黑彩幡	黃彩幡
14	五色絲	靑線	紅線	白線	黑線	黃綃
15	五時花	靑時花	紅時花	白時花	黑時花	黃時花
16	五菩提樹葉	香樹葉	楸樹葉	夜合樹葉	梧桐樹葉	樫樹葉
17	五吉祥草	矩舍草	摩訶矩舍草	室利矩舍草	苾芻矩舍草	悉黨矩舍草
18	五傘蓋	靑蓋	黃蓋	紅蓋	綠蓋	白蓋
19	五杵	靑帛杵	紅帛杵	白帛杵	黑帛杵	黃帛杵

2) 내용 및 특징

○ 이 괘불도는 1928년에 제작된 것으로, 아미타불삼존과 아난존자, 가섭존자 등 5존을 화면에 꽉 차게 그린 간단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본존인 아미타불이 타원형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배경으로 정면을 향해 있으며, 좌우에는 정병(淨甁)을 든 관음보살(觀音菩薩)과 연꽃을 든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협시하였다. 아미타불은 둥근 얼굴에 높고 뾰족한 육계(肉髻)가 솟아있으며, 머리에는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로 장식되었다. 목은 짧은 편이어서 다소 답답해 보이지만 가늘게 삼도(三道)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상체에는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법의(法衣)를 걸쳤는데, 법의 가장자리는 화려한 화문으로 시문하였다. 드러난 가슴 아래로는 군의(裙衣)가 보이며, 군의자락은 발목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쭉 뻗어 무릎 아래까지 내렸으며 왼손은 배 앞으로 댕겨 엄지와 대지를 맞잡은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하였다. 두 손 가운데 특히 왼손은 아미타불의 신체에 비해 너무 작아서 비례가 맞지 않는다. 좌협시보살인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이 그려진 보관을 쓰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올리고 오른손은 내려 정병을 쥔 채 정면을 향해 서있으며, 우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은 두 손으로 연꽃가지를 비스듬히 들고 역시 정면을 향해 서있다. 두 보살은 아미타불보다 앞 쪽으로 나와 있어 본존을 약간 가렸는데, 이러한 배치는 20세기 괘불도에서 종종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화면 상단 본존의 두광 좌우로는 아난존자(阿難尊者)와 가섭존자(迦燮尊者)가 각각 손을 맞잡은 채 중앙을 향해 서있다. 젊은 사미승의 모습인 아난존자는 본존을 향해 두 손을 맞잡아 합장하였으며, 백발과 흰수염이 성성한 노인모습의 가섭존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지권인같은 수인을 취하였다. 이들 존자는 다른 권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져 있어 그림의 중심은 아미타삼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단의 배경은 청색을 칠하고 갈색과 주황색, 녹색의 도식화된 채운(彩雲)을 드문드문 배치하였으며, 하단은 옅은 양녹색으로 칠하였다.

○ 이 괘불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음영법의 사용이다. 신체의 윤곽선에는 음영을 주었으며, 본존의 법의에도 윤곽선을 먹으로 그은 후 선을 덧대어 입체감을 주었다. 또 불, 보살은 음영없이 고르게 설채된 반면,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는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채색은 황색과 주황색, 청색, 흰색 등 근대기 불화에 많이 사용된 채색이 두드러지며, 동시대 다른 불화와 달리 안료의 번짐 현상은 심하지 않다. 화면 하단에는 묵서로 아래와 같이 화기가 적혀있다.

[화기]

岩於」
佛紀二九五五年 戊辰 四月 日/ 新畵成奉安于/ 漢京杏村敎堂也/
緣化所/
證明 鐵牛大吼/ 會主 迦陵東虎/ 立绳 雪松尙玄/ 持殿 東雲景壽/ 金魚 香庵性曄/ 誦呪 比丘英鮮/ 鍾頭 沙彌正安/ 供司 比丘尼戒明/ 別座 比丘一來/ 都監 比丘息慈/ 化主 沙門南溪/

佛事施主/
淸信女乙丑生安氏普明佛/ 淸信女甲申生崔氏圓滿日/ 淸信女丁卯生韓氏淨滿月/ 淸信士壬戌生金徧行/ 乾命生姜奎熙/ 童子甲寅生金敬培/ 本敎堂信男信女一同/ 水陸齋時同參男女一同/

自願同參秩/
淸信女甲子生金氏淨蓮華/ 淸信女戊辰生金氏寶光華/ 淸信女癸酉生張氏大乘華/ 淸信女丁亥生李氏報恩華/ 淸信女己巳生鄭氏寶德華/ 淸信女丙寅生金氏蓮華性/ 淸信女丁卯生李氏智勝行/ 淸信女壬戌生金氏明心行/ 淸信女辛巳生閔氏道德華/ 淸信女戊子生鄭氏大慈日/
淸信女丁巳生田氏淸淨行/ 淸信女己未生金氏積德行/ 淸信女庚戌生高氏普賢心/ 淸信女庚申生張氏上品華/ 淸信女辛未生李氏大道行/ 淸信女丁巳生姜氏善德華/ 淸信女戊午生姜氏寶德華/ 乾命乙丑生咸千根/ 淸信女辛未生金氏明德行/ 淸信女辛未生金氏/
淸信女戊辰生李氏福德華/ 淸信女丁卯生林氏圓明華/ 淸信女壬戌生金氏淨覺月/ 淸信女庚寅生羅氏正法華/ 童女辛亥生金善敬/ 淸信女壬戌生金氏善德華/
淸信女癸亥生韓氏圓滿月/ 乙酉生李氏/ 乙卯生裵氏/ 丁巳生又順/
童子壬子生閔炳淵/ 童子甲寅生閔炳吉/ 乾命戊子生羅元正/ 淸信女癸酉生張氏受戒行/
淸信女丁巳生朴氏普賢心/ 淸信女壬申生金氏平等心/ 淸信女 生李氏安養心/
淸信女丙寅生洪氏一正心/ 淸信女乙卯生朴氏大光華/ 淸信女己巳生朴氏大善行/
淸信女庚子生郭無邊光明/ 淸信女丙辰生金氏大悲月/ 淸信女壬戌生崔氏上生華/
乾命戊午生金貞鉉/ 童子壬戌生金元植/ 童子戊辰生金亨植/
淸信女甲戌生梁氏德仁華/ 淸信女壬戌生池氏極樂行/ 乾命戊戌生尹氏/

乾命癸酉生尹基鳳/ 淸信女甲子生洪氏精進佛/ 淸信女甲寅生李氏光明日/
淸信女甲寅生金氏法性華/ 坤命崔氏/ 坤命乙丑生黃氏/ 信女癸亥生李氏淨蓮華/
信女戊辰生李氏妙蓮華/

○ 화기에 의하면 불기 2955년 무진(戊辰) 4월에 괘불도를 새로 조성하여 한경 행촌교당(漢京 杏村敎堂)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볼 때 이 괘불도는 1928년 4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한경, 즉 서울에 위치했던 행촌포교당에 조성 봉안했던 괘불도로 추정된다. 이 괘불도가 언제 대성암으로 이안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사찰측의 전언에 의하면 대웅전의 불단 아래에서 수십 폭의 도량장엄화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현재 도량장엄화는 모두 소각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이 괘불도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예산 향천사 괘불도(1924년)의 예를 볼 때 소각된 도량장엄화는 오여래도와 사보살도, 팔금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괘불도 조성의 증명(證明)은 鐵牛 大吼, 會主는 迦陵 東虎인데, 1929년에 간행된 <佛敎> 제69호에는 '행촌동 불교회에서 동안거 해제를 이용하여 홍철우노사(洪鐵牛老師)와 함동허화상(咸東虛和尙)이 음력정월 10일부터 3일동안 관음예문(觀音禮文)을 행하고 미타예참법문(彌陀禮懺法門)을 설했다'는 기사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철우와 동호는 행촌포교당에 주석하던 승려였으며 당시 이 괘불도를 봉안하고 법회를 개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이 괘불도는 금어인 향암 성엽 1인이 조성하였다. 성엽은 20세기 초반에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계룡산화파의 원조인 금호당 약효의 제자로 추정된다. 그는 1905년에 약효와 함께 마곡사 대웅보전 삼세불도를 조성하였으며 1906년에는 금선대 칠성도를 제작하였다. 이어 1919년에는 금지사의 불사를 주도하였으며, 같은 해 약효와 함께 서울 극락선원의 괘불도를 조성하였다. 성엽과 약효와의 관계는 대성암 괘불도의 도상이 1919년의 극락선원 괘불도, 1924년의 향천사 괘불도와 유사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기타

○ 대성암 괘불도는 조선말기에 성행한 아미타괘불도로서, 삼존이 중심이 되는 구도를 비롯하여 편단우견의 착의법, 보살의 복장, 아난존자와 가섭존자의 모습, 신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손의 모습 등에서 서울 극락선원 괘불도(1919), 예산 향천사 괘불도(1924년, 등록문화재) 등과 친연성을 갖고 있다. 극락선원 괘불도에 묘사된 동자와 동녀, 향천사 괘불도에 표현된 6제자와 4동자, 4천인 및 시방불도상 등이 생략되긴 했지만, 구도와 색채, 인물표현이 금호당 약효가 동성정연 청응목우 영성몽화 연암경인 효암재찬 래순 등 제자들과 함께 제작한 향천사 아미타괘불도(1924년)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아 향천사 괘불도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대성암 괘불도는 1928년에 鐵牛를 증명, 東虎를 회주로 하여, 19세기후반~20세기 전반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계룡산 화파의 대표화승인 금호당 약효의 제자 향암 성엽이 단독으로 조성하였다. 괘불도를 비롯하여 靈山齋 때 사용되던 오여래도와 사보살도, 팔금강도 등이 함께 전래되어 왔으나 아쉽게도 괘불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량장엄화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스승인 금호당 약효가 1924년에 조성한 예산 향천사 괘불도와 도량장엄화 18점이 모두 남아있어 대성암 괘불도 역시 그와 같은 선례를 따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괘불도는 비록 조성연대는 오래지 않았지만 복장낭과 후령통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20세기 전반 경의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괘불도 조성을 통해 조선 말기~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찰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이다. 이에 등록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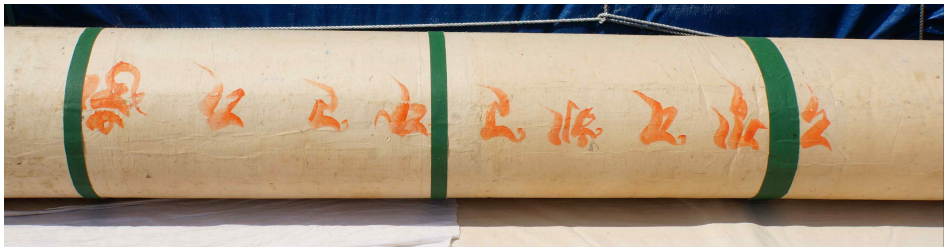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ㅇ 면본바탕이며 조성연대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괘불도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그렇지만 뒷면에 꺾임을 방지하기 위한 청테이프가 붙어져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 ㅇ 괘불도 상단에 붙어있는 2개의 복장낭은 현재 일부가 박락되고 헤져 있어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복장물은 보존처리를 거친 후 보관함을 만들어 내용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토록 한다. 또한 복장물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 차후 불화복장의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ㅇ 대성암 괘불도와 함께 조성된 도량장엄화(오여래도, 사보살도, 팔금강도)를 재현해 냄으로써 20세기 전반기 사찰에서 거행된 영산재의식을 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ㅇ 괘불도는 원래 야외의식을 위해 조성된 것이므로 괘불도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 영산재나 초파일 등 의식 때 괘불도를 걸어 신도들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괘불도의 보존환경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6) 종합의견

- ㅇ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는 1928년에 향암 성엽이 조성한 괘불도로서, 비록 조성연대는 오래지 않았지만 복장낭과 후령통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20세기 전반 경의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조선 말기~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이다. 이에 등록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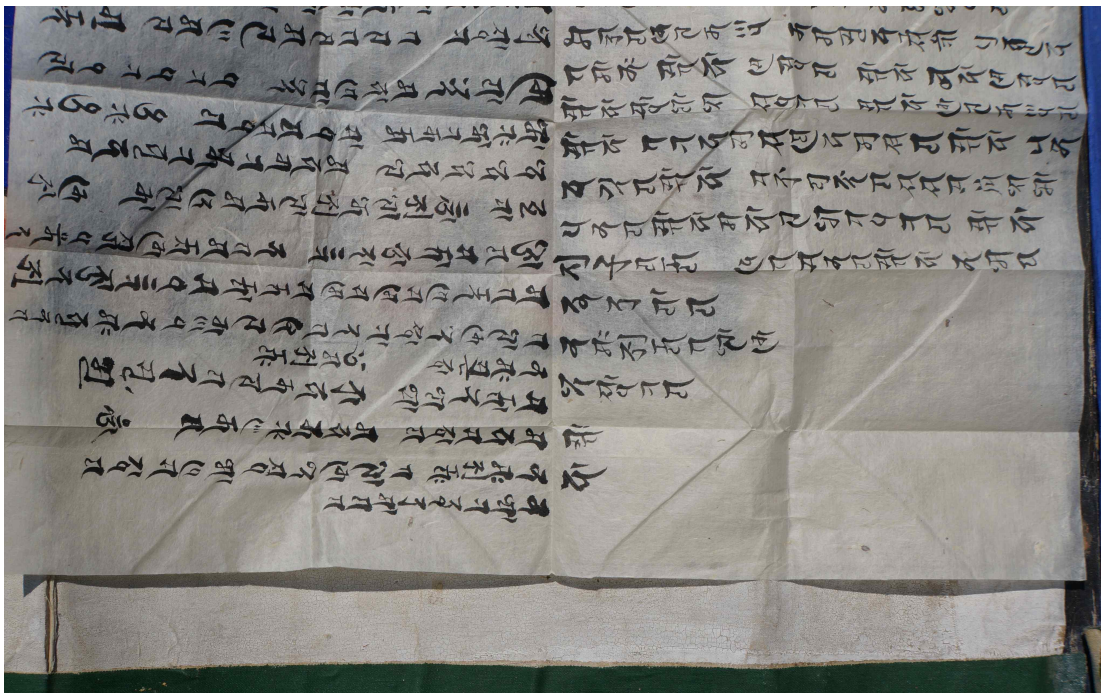
괘불도



괘불도의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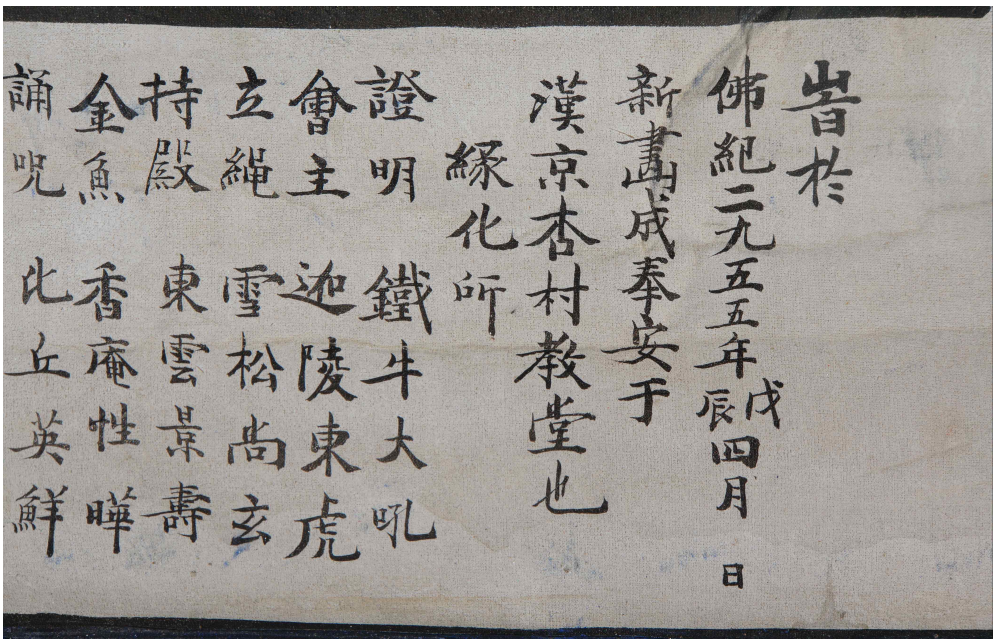
복장낭

복장물



복장물 - 다라니

종이 보병(東方) 내 복장물



화기

<○○○○ 교수>

1) 현황

○ 북한산 대성암에 소장되어 있는 괘불도로서 1928년에 조성되었다. 위쪽 상축은 반달 형태이며, 아래 쪽 하축은 원형으로 지름이 6.0㎝이다. 상축에는 2개의 고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천으로 만든 복장낭 2개가 매달려 있다. 복장낭 표면 앞쪽에는 쌍희자(囍)가 금으로 적혀 있으며, 뒤쪽에는 묵서의 '옴' 자와 함께 한글로 '소화삼년무진하' 라고 쓰여 있다. 복장낭에서는 '천원(天圓)' '지방(地方)' 이라 묵서되어 있는 오색실 한지묶음 1조가 발견되었다. 현재 괘불도의 전

반적인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가로 꺾임자국이 많이 나있는 실정이다.

2) 내용 및 특징

○ 이 괘불도는 1928년 조성 작으로 근대기 충청지역의 중심 화파인 마곡사화파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괘불도로서, 향암당 성엽(香庵堂 性曄)이 그렸음을 화기를 통해 알 수 있다.

○ 화면 전면에 삼존불을 내세우고 뒤쪽으로 물러나게끔 가섭존자와 아나존자를 두어 평면의 화면에 공간감을 형성해주고 있다. 중심부에 위치한 본존불의 경우 오른쪽 어깨를 완전하게 드러낸 우견편단형(右肩偏袒形) 착의법에, 법의(法衣)는 홍색 대의(大衣)에 밝은 녹색 계통의 군의(裙衣)를 착용하였다. 두 손은 왼손을 복부쪽에 두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길게 내려뜨려 마치 항마촉지인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손 모습은 17세기 이후 비로자나불을 제외한 모든 불(佛)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가모니불일 경우 좌우 협시보살상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좌협시보살상의 경우 보관에 화불(化佛)을 모시고 손에 감로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협시보살상은 두 손으로 연꽃 가지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의 보살상이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존불의 성격은 석가모니불 또는 아미타불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관음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을 협시로 둔 석가모니불 도상의 경우는 일찍이 곡성 도림사영산회괘불도(1683년)에서 엿보이고 있어 대성암 괘불도 역시 석가모니불 그림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좌협시보살상의 경우 여의(如意)를 지물로 든 문수보살상 대신 정병(淨甁)을 들고 화불(化佛)이 있는 보관을 쓴 관음보살상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석가모니불의 제1 협시인 문수보살상 대신『묘법연화경』「관음보살보문품」중의 대표 홍포보살인 관음보살상을 두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존불 머리광배 좌우로는 석가모니불의 제1·2존자인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하였으며, 화기(畵記) 내용 중 '불사시주(佛事施主)' 명단에 각 개인 시주자와 함께 '수륙재시동참남녀일동(水陸齋時同參男女一同)' 으로 되어 있음을 보아 수륙재 때 사용되는 석가모니불 주인공의 〈영산회상도〉 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 삼존상의 각 존상 표현은 턱이 갸름해져 둥글어진 얼굴 형태에 황색이 많이 가미된 피부색을 하고 주홍색과 연녹색 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도(三道) 부위와 가섭존자의 신체 외에는 음영이 배제된 채 선의 강약과 색 배합으로만 입체감을 나타냄으로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본존불의 광배는 키 모양 광배의 변형으로 테두리 쪽에 오금을 주어 능형(菱形)을 이루고 있으며, 안쪽에는 아무런 문양 없이 녹색과 하늘색 단색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둥글어진 얼굴 형태에 지극히 부분적인 곳에만 간단한 음영이 보일 뿐 단순 처리되어 있는 신체, 테두리가 능형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문양 없이 단색 처리 된 변형된 키 모양 광배, 전면에 삼존상을 두고 권속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평면적 화면에 원근을 나타내주는 화면구성방법 등은 마곡사 화파의 대표 화승인 금호당 약효(錦湖堂 若效)가 수화승을 맡아 조성한 충남 예산 향천사 괘불도(1924년)와 비교하여 권속의 수만 다소 차이가 드러날 뿐 거의 동일한 양식특징을 보여 그 영향관계가 짐작된다.

○ 화승 향암 성엽은 금산 보석사 대웅전 봉안 석가모니후불도(1911년), 충청남도 부여 내산면 금지리 금지사(金池寺) 봉안의 아미타후불도・칠성도(1919년) 등에서 금호 약효와 함께, 또는 금어로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마곡사 화파의 영향권 내에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화면 하단 테두리에 묵서의 화기가 남아 있는데 내용을 통해보아 이 괘불도는 1928년 향암성엽이 조성하여 서울(漢京)의 행촌교당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畵記]

岩於
佛紀二九五五年戊辰四月 日
新畵成奉安于
漢京杏村敎堂也

緣化所
證明 鐵牛大吼
會主 迦陵東虎
立繩 雪松尙玄
持殿 東雲景壽
金魚 香庵性曄
誦呪 比丘英鮮
鍾頭 沙彌正安
供司 比丘尼戒明
別座 比丘一來
都監 比丘息慈
化主 沙彌南溪

佛事施主
淸信女乙丑生安氏普明佛
淸信女甲申生崔氏圓滿日
淸信女丁酉生韓氏淨滿月
淸信士壬戌生金徧行
乾命 生姜奎熙
童子甲寅生金敬培
本敎堂信男信女一同
水陸齋時同參男女一同

自願同參秩
淸信女甲子生金氏淨蓮華

淸信女戊辰生金氏寶光華
淸信女癸酉生張氏大乘華
淸信女丁亥生李氏報恩華
淸信女己巳生鄭氏寶德華
淸信女丙寅生金氏蓮華性
淸信女丁卯生李氏智勝行
淸信女壬戌生金氏明心行
淸信女辛巳生閔氏道德華
淸信女戊子生鄭氏大慈日
淸信女丁巳生全氏淸淨行
淸信女己未生金氏積德行
淸信女庚戌生高氏普賢心
淸信女庚申生張氏上品華
淸信女辛未生李氏大道行
淸信女丁巳生姜氏善德華
淸信女戊午生姜氏寶德華
乾命乙丑生咸千根
淸信女辛未生金氏明德行
淸信女辛未生金氏
淸信女戊辰生李氏福德華
淸信女丁卯生林氏圓明華
淸信女壬戌生金氏淨覺月
淸信女庚寅生羅氏正法華
童女辛亥生金善敬
淸信女壬戌生金氏善德華
淸信女癸亥生韓氏圓滿月
乙酉生李氏
乙卯生裵氏
丁巳生又順
童子壬子生閔炳淵
童子甲寅生閔炳吉
乾命戊子生羅元正
淸信女癸酉生張氏受戒行
淸信女丁巳生朴氏普賢心
淸信女壬申生全氏平等心
淸信女　　生李氏安養心

淸信女丙寅生洪氏一正心
淸信女乙卯生朴氏大光華
淸信女己巳生朴氏大善行
淸信女庚子生郭無邊光明
淸信女丙辰生金氏大悲月
淸信女壬戌生崔氏上生華
乾命戊午生金貞鉉
童子壬戌生金元植
童子戊辰生金亨植
淸信女甲戌生梁氏德仁華
淸信女壬戌生池氏極樂行
淸信女丁巳生鄭氏菩薩行
乾命戊戌生尹氏
乾命癸酉生尹基鳳
淸信女甲子生洪氏精進佛
淸信女甲寅生李氏光明日
淸信女甲寅生金氏法性華
坤命　　崔氏
坤命乙丑生黃　氏
信女癸亥生李氏淨蓮華
信女戊辰生李氏妙蓮華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28년 향암 성엽에 의해 조성되어 서울 행촌교당에 봉안하였던 대성암 괘불도는 도상해석상 비록 본존불의 성격이 석가불인지 아미타불인지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화면구성을 비롯하여 존상의 형태 및 신체 특징, 본존불 광배 모양과 표현기법, 주홍색과 연녹색 및 코발트 계통의 청색의 사용 등에 있어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계룡산 화파(마곡사 화파)의 양식특징을 잘 따르고 있는 불화로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수륙재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성암 소장 괘불도는 근대 불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사 화파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성시기와 봉안장소가 명확하게 밝혀져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보존정비

- 현재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는 하나 가로 꺾임자국이 심하게 남아 있으며, 꺾임 방지를 위해 배면에 포장용 청테이프로 둘러놓아 이의 제거와 더불어 보수배접이 필요하며, 보수 시에는 더 이상의 화면 꺾임에 대비하여 굵게말이축을 제작하여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보강으로 괘불도의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서 괘불함 또한 새롭게

조성하여 할 것이다.

- 현재 남아 있는 복장낭 역시 보수처리하여 매달아 둠으로써 괘불도 본래 장엄의 모습을 갖추도록 함이 좋을 듯하다.
- 괘불도의 보존을 위한 보호각 건립은 사찰의 규모 및 운영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1차적인 보존처리 및 보강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활용 착안사항

- 괘불도의 경우 1년에 1-2회 정도는 거풍을 실시하여 보존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월 초파일이라든지 수륙재 등의 별도 행사 시 공개토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보 및 불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한산 내에서의 여법한 불교행사 개최와 문화유산 공개에 따른 역사인식 및 공감대 형성, 문화유산을 대하는 시민의식 고취 등 교재로서의 자료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

1) 현황

○ 이 괘불은 화폭의 위·아래에 나무로 만든 축을 끼워 걸 수 있게 하였다. 상축은 둥근 단면으로, 하축은 삼각형의 단면으로 하였다. 화기는 따로 화기란을 구획하지 않고 화폭 아래쪽에 먹으로 기재하였다. 괘불함에 말아 보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가로 접힘 흔적이 있고 안료의 변색, 오염, 박락이 다소간 있긴 하지만, 화면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채색이나 세부 문양 등이 잘 남아 있다. 그러나 청테이프로 보이는 것을 화폭의 바깥쪽과 화폭 뒤쪽에 붙여 놓아(아마도 화폭의 보강을 위해 후대에 붙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안을 강구하여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좋겠다. 복장낭 2점이 상축에 남아 있으며, 그림의 뒷면에는 붉은색으로 범자를 적었다.

2) 내용 및 특징

○ 이 괘불은 향암 성엽(香庵性曄)이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화면의 중앙에 아미타여래를 크게 그리고 양쪽에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여래의 광배 뒤쪽에는 가섭과 아난을 작게 그리고 배경에는 피어오르는 구름을 표현하였다.

○ 본존인 아미타여래는 왼손을 가볍게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아래로 늘어뜨렸다. 관음보살은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어 있고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으며, 세지보살은 연꽃 가지를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양손으로 가지의 위아래를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황, 코발트블루 등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들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문양, 불보살의 육신부에 옅은 먹을 사용하여 음영을 표현하는 등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밑그림을 살펴보면, 주요 존상들의 모습과 배치 등이 향암 성엽의 스승인 금호 약효가 1920년을 전후해 제작한 괘불들과 매우 유사하여 성엽이 이들 괘불에 근거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불보살과 가섭의 특징적인 상호, 독특하게 휘날리는 불보살의 대의와 군의,

여래의 지나치게 작은 손까지도 금호 약효가 제작한 괘불의 것과 닮아 있다. 또 불보살의 옷끝단을 검은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문양을 시문하는 방식도 금호 약효의 화파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이다. 실제로 1919년에는 금호 약효, 향암 성엽이 함께 <극락선원 괘불도>를 제작한 사례가 있어 화풍상의 영향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ㅇ 화기의 불사 시주자 중에는 수륙재 때 동참한 남녀 일동이 참여하기도 하여 당시의 불사도 요즘의 불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 이 괘불은 10미터가 넘는 대형 괘불에 비하면 작은 편에 속하지만, 화기를 통해 볼 때 동참한 대중의 수가 상당하여 많은 인원이 십시일반으로 시주하여 조성된 괘불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문헌자료

- ㅇ 『북한산의 문화유적과 불교자료 연구』((사)한국전적문화재연구소・북한산 대성암, 2014)
- ㅇ 『韓國의 佛畵 畵記集』(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4) 기타

- ㅇ <고양 대성암 괘불도>는 화기를 통해 제작 당시인 1928년에는 서울의 행촌 교당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대성암으로 옮겨온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 ㅇ 이 괘불은 비슷한 유형의 괘불인 1924년의 <향천사 괘불도>와 비교해 화폭의 크기나 화면 내 구성 및 도상, 화풍이 유사하나 권속이 간략하고 문양 등 세부의 치밀함과 정세함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화기에 기재된 대로 화승 향암 성엽이 단독 제작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성암의 괘불은 금호약효를 비롯해 우수한 화승들을 포함한 7인이 참여해 그린 <향천사 괘불도>와 여러 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근대기 불화 조성의 다양한 사례 중 하나로 시대적 특징을 지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ㅇ <고양 대성암 괘불도>는 근대기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대에까지 그 화맥이 이어지고 있는 금호 약효의 제자인 향암 성엽이 제작한 불화로 금호 약효 화파의 도상과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강렬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장낭도 원래 모습대로 잘 남아 있어 근대기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ㅇ <고양 대성암 괘불도>는 야외 의식용 불화라는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특화, 발전시켜 불교의식의 전승 및 재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불교의식과 괘불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괘불과 관련하여 야외 불교의식에 관련된 지화(紙花) 등의 공예품, 음식, 여러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7) 종합의견

- ㅇ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안건번호 근대 2015-04-011

11.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 현상변경 허가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다. 현상변경 허가신청 처리결과

건 명	주요내용	처리결과
1. 미디어 파사드 상영	○신 청 인 : ○○○ ○신청내용 : 독립문에 미디어파사드 투사 상영 ○검토의견 :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출된 신청안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독립문의 성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의 실습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교수)	불허 ('15.5.22)
2. 옥상 출입문 보수	○신 청 인 : 서대문구청장 ○신청내용 : 옥상 출입문 보수 ○허가조건 : 기존 출입문과 동일한 형태와 재료로 보수하도록 함(단, 광두정의 고정은 한식못을 사용하도록 함)	허가 ('15.5.22)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6명, 찬성 6명